

發汗에 對한 四象醫學的 考察

서 웅* · 송정모*

Abstract

A Stud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bout Sweating

Seo Woong · Song Jeong-mo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Woosuk University

Sweating is a important concept with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fter studying about sweating of four constitutions, I can get a conclusion.

It is summarized as follows.

1. In Taeyangin(太陽人) and Taeumin(太陰人) sweating can be explained by symptom of Kiekjiki(氣液之氣), and can be explained by symptom of Suekjiki(水液之氣) in Soeumin(少陰人) and Soyangin(少陽人)
2. Sweating of Soeumin(少陰人) is a expression of strength or weakness of Bijang(脾臟)
3. Sweating of Soyangin(少陽人) is a expression of Kangeum(降陰) and Yangyak(陽弱)
4. Sweating of Taeumin(太陰人) is a expression of Paejang(肺臟)'s function

1. 緒論

정확한 체질의 판정은 四象體質臨床의 기본이자 동시에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체질구분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體型과 性情, 음식의 기호나 畏寒의 여부 등에 대한 問診, 또는 望診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체질의학을 만든 李濟馬 역시 이와 같은 방법만으로 인간을 네가지 체질로 완벽하게 나누기 힘들음을 인식하였으며, 결국 病證을 파악하여 이를 참고함으로써 완벽한 체질의 구분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였다¹⁾.

四象體質病證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준 韓醫學에서 病證속의 단순한 일개 증상에 속하는 것들이 病證과약의 핵심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少陽人 裏熱便閉證의 便秘나 少陰人 太陰·少陰證의 泄瀉와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증상에 대한 분석은 體質病證 과약에 중요하며 아울러 體質判定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홍순용, 이을호 :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 p.142, 1992.
“人物形容 仔細商量 再三推移 如有迷惑則 參互病證 明見無疑 然後 可以用藥 最不可輕忽而 一貼藥 誤投重病險證 一貼藥 必殺人”

*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과

교신저자 : 서웅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번지 우석대한방병원 Tel) 063-220-8667 E-mail) westgom@yahoo.co.kr

發汗²⁾은 東·西洋醫學間의 기본 이론 차이가 많은 概念으로 東洋醫學에서는 病證把握에 심도있게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韓醫學과 四象體質醫學과의 기본관점 차이가 큰 概念이기도 하다.

이에 필자는 病證把握의 핵심증상들 중에서 ‘發汗’에 대해 考察해 봄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病證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이를 통하여 體質判別의 參考자료로 이용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東醫壽世保元』의 체질별 病證論의 내용을 ‘發汗’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少陰人·少陽人·太陰人·太陽人의 순서로 정리하였고, 『東醫壽世保元草本卷』에 있는 내용을 따로 정리해 보았다. 또한 證治醫學에서 말하는 汗의 정의와 病理的 發汗에 해당하는 自汗·盜汗·亡陽에 관한 내용을 『東醫寶鑑』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1. 既存 韓醫書에서의 發汗

『東醫壽世保元』에는 많은 기존 醫書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은 대부분 『東醫寶鑑』에 수록된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發汗에 대한 證治醫學的인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東醫寶鑑』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發汗의 정의 및 病理的인 發汗의 형태로 自汗과 盜汗, 亡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發汗의 정의

* 內經曰心爲汗又曰陽加於陰謂之汗釋曰陽氣上薄陰能固之則蒸而爲汗又曰陽之汗而天地之雨名之³⁾

* 腎邪入心爲汗⁴⁾<難經>

* 汗者心之液心動則惕然而汗出⁵⁾<醫鑑>

2) 여기서 말하는 ‘發汗’은 한방 치료법의 하나인 發汗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生理的, 病理的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汗出’을 말한다. 發汗法을 의미할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을 첨가하기로 한다.

3)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p.123, 1994.

4) 김정찬: 難經譯釋, 서울, 정담, p. 169, 1993.
“腎主濕, 入肝爲泣, 入心爲汗, 入脾爲涎, 入肺爲涕, 入自爲唾...”

5) 龔信: 古今醫鑑, 江西省, 江西科學技術出版社, p. 188, 1990.
“夫汗者, 心之液也. 心動則惕惕然而汗出也...”

* 心爲君火脾胃屬土此濕熱相薄爲汗明矣又如甌中燒酒若非湯火熏蒸則不能成汗液也⁶⁾<正傳>

2) 病理的 發汗

(1) 自汗

* 自汗者無時而澀澀然出動則爲甚屬陽虛胃氣之所司也治法宜補陽調胃⁷⁾<正傳>

* 靈樞曰衛氣者所以肥腠理司開闔者衛氣虛則腠理疎開闔無司而汗多矣⁸⁾

* 內經曰汗出偏沮使人偏枯⁹⁾

* 多汗身軟者濕也心主熱脾主濕濕熱相薄如地之蒸氣爲雲霧露宜調衛湯玉屏風散胃熱者二甘湯¹⁰⁾<入門>

(2) 盜汗

* 內經曰腎病者寢汗出憎風註曰寢汗者盜汗也成無己曰盜汗者睡中汗出覺則止也¹¹⁾

* 盜汗者寐中通身如浴覺來方知屬陰虛榮血之所主也宜補陰降火¹²⁾<正傳>

* 盜汗乃陰虛血虛有火也當歸六黃湯甚妙又四物湯(方見血門)加知母黃柏兼氣虛加參朮黃芪¹³⁾<丹心>

(3) 亡陽¹⁴⁾

* 凡汗多不止謂之亡陽又汗不得出亦謂之亡陽如心

6)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p.259, 1986.

“心爲君火主熱, 脾胃屬土主濕, 濕熱相搏爲汗明矣. 亦如地之濕氣, 爲雲霧而上升, 其天氣若不下降, 則不能成霖雨也. 又如甌中燒酒, 若非湯火蒸淘, 則不能成汗液也. 夫各臟皆能令人出汗, 獨心與脾胃主濕熱, 乃惡司耳.”

7) 虞搏: 前揭書, pp.259-260, 1986.

8)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49, 1982. 本臟第四十七의 내용에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開合者也”라는 내용이 나오나上記한 東醫寶鑑 내용의 全文이 그대로 나온 부분은 찾지 못함.

9) 王冰: 新編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p.18, 1994. 生氣通天論에 나온 내용으로 주석을 보면 “夫人之身 常偏汗出而濕潤者 久久偏枯 半身不遂”라 하였다.

10) 李梴: 新校 編註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p.269, 1994. 雜病 虛類의 汗 부분에 기재된 내용임.

11) 王冰: 前揭書, p.167. 藏氣法時論에 나온 내용으로 ‘喘咳 身重 寢汗出 憎風’이라 하였다.

12) 虞搏: 前揭書, p.258.

13) 朱震亨: 新編 丹溪心法附餘(하), 서울, 大星文化社, p. 673, 1993.

14) 醫學入門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 原文을 찾아 보았으나 東醫寶鑑에 기재된 原文 그대로는 찾지 못하였고 가장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곳을 다음 脚註들의 내용에 기재하여 놓았다.

痞胸煩面青膚潤者難治色黃手足溫者可治¹⁵⁾<入門>

* 凡汗漏不止則眞陽脫亡故謂之亡陽其身必冷多成痺寒矣¹⁶⁾<入門>

* 凡發汗過多則陽虛不固汗出多則津液亡而小便難四肢者諸陽之本液脫者骨屬屈伸不利是以四肢拘急桂枝附子湯主之¹⁷⁾<入門>

2. 『東醫壽世保元』

1) 少陰人

發汗의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病證으로 少陰人 表病인 鬱狂, 亡陽 病證이 있다. 少陰人의 病證은 傷寒論 六經病證의 여섯 가지 중 少陽經證을 제외한 다섯 病證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¹⁸⁾ 鬱狂, 亡陽證에 해당하는 傷寒 病證으로는 太陽病과 陽明病이 해당된다. 李濟馬는 太陽病과 陽明病의 전변과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張仲景과는 판이하게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陽明病에 대한 견해

『傷寒論』에 의하면 陽明病은 크게 太陽陽明, 正陽陽明, 少陽陽明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는 病이 陽明病으로 傳變되기 전 발원지에 따라서 나는 것으로 太陽病에서 傳變되면 太陽陽明, 陽明經 자체에서 腑로 轉移된 경우를 正陽陽明, 少陽經에서 轉移된 경우를 少陽陽明이라 칭한 것이다¹⁹⁾. 따라서 이외에도 太陰陽明, 厥陰陽明, 少陰陽明이 나타나며 『傷寒論』에 간략한 언급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점은 陽明病의 형성이 대부분 각 病證들의 誤治, 즉 잘못된 汗, 吐, 下 三法에 의해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誤治가 개개인의 체질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李濟馬가 생각한 것 같다.

李濟馬는 이 세 가지를 현실적으로 太陽陽明을 脾約이라 하고 正陽陽明, 少陽陽明을 똑같이 胃家實로 하여 두 가지로 나누었으며, 張仲景은 이 두 病

證이 서로 진행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李濟馬는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太陽病에서부터 이미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서로 다른 病證이라 하였다²⁰⁾.

(2) 鬱狂과 亡陽

앞서 (1)에서 말한 바와 같이 太陽病에서 陽明病으로 전변되는 과정에서 李濟馬는 少陰人의 表病의 주를 이루는 鬱狂과 亡陽證을 파악해 내었다. 이 두 病證의 구분에 있어서 發汗의 여부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으로 裏病인 太陰證, 少陰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虛實의 구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²¹⁾.

『東醫壽世保元』을 근거로 하여 鬱狂과 亡陽證의 病機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病機

㉠ 鬱狂證

少陰人의 脾局陽氣가 寒邪에 의해 억압되어 있는데 腎局陽氣가 邪氣에 의해 拒格됨으로써 直升하여 脾局에 연결하지 못하고 膀胱에 鬱縮되어 생긴다²²⁾. 太陽病에서 陽明病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 陽明病 胃家實로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傷寒 太陽病 下焦蓄血의 病證에서 그 病機를 유추해 볼 수 있다.

㉡ 亡陽證

『東醫壽世保元』에 亡陽證의 病機를 언급한 부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²³⁾.

* 汗多亡陽

* 少陰人 雖則冷勝 然 陰盛格陽 敗陽外遁則 煩熱而 汗多也 此之謂 亡陽病也

* 亡陽者 陽不上升而 反爲下降則 亡陽也

* 陰盛格陽於上則 陽爲陰抑 不能上升於胸膈 下陷

20) 홍순용, 이을호 : 前掲書, pp.167-168.

“然 脾約 自脾約也 胃家實 自胃家實也 寧有其病 先自脾約而 後至於胃家實之理耶 胃家實 脾約 二病 如陰證之太陰 少陰病 虛實證狀 顯然不同 自太陽病 表證因在時 已爲兩路 分枝 元不相合”

21) 脚註 18) 내용 參照.

22) 홍순용, 이을호 : 前掲書, p.154.

“張仲景所論 下焦蓄血證 卽 少陰人 脾局陽氣 爲寒邪所掩抑而 腎局陽氣 爲邪所拒 不能直升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23) 홍순용, 이을호 : 上掲書, p.260.

15) 李梴 : 前掲書, p.43.

16) 李梴 : 上掲書, p.43.

17) 李梴 : 前掲書, p.30.

18) 송일병 외 15인 :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p.144, 1997.

19) 채인식 : 傷寒論譯註, 서울, 교문사, pp.142-143, 1987.

大腸而 外通膀胱故 背表煩熱而汗出也 煩熱而 汗出者 非陽盛也 此 所謂<內氷外炭> 陽將亡之兆也

亡陽은 한마디로 말하면 陰盛格陽의 상태로 陰氣가 지나치게 편성되어 陰陽이 서로 拒格되어 敗陽이 胸隔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도리어 大腸局으로 下陷하여 膀胱으로 外通하는 현상이다. 그 결과로 煩熱이 생기면서 汗出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 생기는 열은 陽盛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며 陽氣가 소멸되려 하는 징조이다.

② 症狀

鬱狂, 亡陽의 증상을 初, 中, 末證으로 나누어 정리된 부분을 간략하게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表 1. 鬱狂, 亡陽의 初, 中, 末證에 따른 症狀

鬱狂	
初證	表證因在而其人如狂
中證	陽明病胃家實不更衣
末證	陽明病潮熱狂言微喘直視
亡陽	
初證	太陽病發熱惡寒汗自出
中證	陽明病不惡寒反惡熱汗自出
末證	陽明病發熱한다

(3) 기타 『東醫壽世保元』에 언급된 少陰人 發汗에 대한 내용²⁴⁾

* 少陰人病候 自汗不出則 脾不弱也 大便秘燥則 胃實也

* 亡陽病證 非但 觀於汗也 必 觀於小便多少也 若小便清利而 自汗出則 脾約病也 此險證也 小便赤澀而 自汗出則 陽明病 發熱汗多也 此危證也 然 少陽人 裡熱證 太陰人 表熱證 亦有汗多而 小便赤澀者 宜察之 不可誤藥

* 胃家實病 其始焉 汗不出 不惡寒 但惡熱而 其病垂危則 漉然 微汗出 潮熱也 漉然微汗出 潮熱者 表寒振發之力 永竭故也 胃竭之候也 脾約病 其始焉 汗

自出 不惡寒而 其病垂危則 發熱 汗多而 惡寒也 發熱汗多而 惡寒者 裡熱撐支之勢 已窮故也 脾絕之候也

2) 少陽人

少陽人은 한마디로 火, 熱의 病證으로 병변이 신속한 것이 특징이다. 생리적으로 陽熱이 많은 체질이므로 그 에너지의 조절을 위해 發汗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나 病證상에서는 發汗이 크게 중요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少陽人病證論에 發汗에 관한 언급은 많지 않으나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⁵⁾.

* 論曰 少陽人病 無論表裏病 手足掌心 有汗則 病解 手足掌心 不汗則 雖全體皆汗而 病不解

* 少陽人病 一日滑利 陰氣下降 手足掌心先汗則 病必愈也

* 三陽合病 頭痛面垢 譫語遺尿 中外俱熱 自汗煩渴 腹痛身重 白虎湯主之

* 胃熱證 大便 三晝夜不通而 汗出則 清陽將渴而 危境也

* 王好古曰 一童子 自嬰至童 盜汗七年 諸藥不效 服涼膈散三日 病已

* 論曰 少陽人 大腸清陽 快足於胃 充溢於頭面四肢則 汗必不出也

上記한 原文을 근거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少陽傷風證에 여러 번 發汗을 시켜야 낫는다고 하고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을 써야 한다고 하였는데²⁶⁾ 여기서 發汗의 의미는上記한 내용에 근거하면 결국 表部의 陰氣를 하강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裏證을 크게 胸膈熱證, 陰虛證으로 나누었을 때 地黃白虎湯을 쓰는 것으로 되있는 白虎湯證에 있어서 自汗煩渴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地黃白虎湯은 대변상태를 중요시 하여 發汗은 크게 중요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²⁷⁾. 그러나 이러한 少陽人 胃熱의 상태에서

25) 홍순용, 이을호 : 上揭書, pp.251, 261, 271, 280, 281.

26) 홍순용, 이을호 : 前揭書, p.251.

“少陽人傷寒病 有再痛三痛發汗而愈者 此病 非再三感風寒而再痛發汗三痛發汗也 … 無論初痛再痛三痛 用荊防敗毒散或荊防導赤散荊防瀉白散…”

27) 홍순용, 이을호 : 上揭書, p.273.

24) 홍순용, 이을호 : 前揭書, pp.159, 169, 185, 208, 209, 210, 261 .

대변이三日 이상 안 나오면서 汗出하면 淸陽之氣가 소실되는 현상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少陽人 上消의 설명에 있어서 少陽人의 大腸 淸陽之氣가 胃를 충족시켜 頭面四肢에 충실하면 汗不出한다고 하였고 少陽人의 汗 또한 陽氣가 弱한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3) 太陰人

太陰人에 있어서 汗出은 肺, 胃脘之氣가 잘 발현되어 呼散之氣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太陰人을 寒, 熱로 구분해서 보았을 때 평상시에는 熱太陰人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多汗하는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으나 실제로 病證에 있어서는 寒太陰人에 주로 나타나는 太陰人 表證에 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太陰人의 胃脘受寒表寒證은 대부분 長感病에 대한 기술인데 그 내용을 보면 發汗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1) 長感病

寒厥을 주로 하는 전염성질환의 일종으로 '40日痛'이라고도 하는데 寒厥한 것이 4-5일 되었는데 發熱하면서 이마에만 가볍게 땀이 나면서 풀리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發汗의 형태와 부위가 病證과약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으로 되었다.

① 病機

평소 노심초사한 후에 胃脘之氣가 쇠약해져 表局이 허박하므로써 外部寒邪를 이기지 못하고 寒邪에 둘러싸여 생기는 것으로, 正邪가 相爭하는데 外邪가 강하고 正氣가 약한 현상이다²⁸⁾

② 發汗의 위치 및 성상

長感病의 病證과약에서 發汗의 위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되었는데, 병이 풀려감에 따라 發汗의 부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²⁹⁾.

* 論曰 此謂之厥者 但惡寒不發熱之謂也 非手足厥逆之謂也 太陰人 傷寒表證 寒厥四五日後 發熱者 重證也 此證 發熱 其汗 必自髮際而 始通於額上 又 數日後 發熱而 眉稜通汗 又 數日後 發熱而 顴上通汗 又 數日後 發熱而 脣頤通汗 又 數日後 發熱而 胸臆通汗也而 額上之汗 數次而後 達於眉稜 眉稜之汗 數次而後 達於顴上 顴上之汗 數次而後 達於脣頤 脣頤之汗 不過一次而 直達於胸臆矣 此證 首尾幾近 二十日 凡 寒厥六七次而後 病解也 此證 俗謂之 長感病 凡 太陰人病 先額上眉稜 有汗而 一汗病不解 屢汗病解者 名曰 長感病

* 大凡 太陰人汗 始自耳後高骨 面部髮際 大通於胸臆間而 病解也

요약하면, 長感病이 풀려감에 따라 耳後高骨, 髮際, 額上, 眉稜, 顴上, 脣頤, 胸臆의 순서로 發汗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發汗이 되더라도 上記部位에 나지 않고 背部 後面으로 머리 아래쪽으로 땀이 나는 것은 凶證이라 하였고 全面에 땀이 나더라도 通汗 始發處인 耳後 高骨에서 不汗하면 死證이라 하였다³⁰⁾.

한편 發汗의 형태에 대한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正強邪弱의 快汗은 어느 부위를 막론하고 땀이 기장알처럼 땀이 굵고 발열을 조금 오래 하다가 들어가는 경우이고, 땀방울이 적으며 방울지지 않고 흐르며 바로 들어가면 正弱邪強의 汗出이다³¹⁾.

4) 太陽人

發汗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四象病證을 水穀之氣病證과 氣液之氣病證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29) 홍순용, 이을호 : 上揭書, pp.317, 319.

30) 홍순용, 이을호 : 前揭書, p.319.

"太陰人 背部後面 自腦以下 有汗而 面部 髮際以下 不汗者 凶證也 全面 皆有汗而 耳門左右 不汗者 死證也 ..."

31) 홍순용, 이을호 : 上揭書, p. 319

"太陰人汗 無論額上眉稜上顴上 汗出如黍粒 發熱稍久而還入者 正強邪弱 快汗也 汗出如微粒 或淋漓無粒 乍時而還入者 正弱邪強 非快汗也 "

"論曰 少陽人真熱病 地黃白虎湯 爲聖藥 而用之者 必觀於大便之通不通也 ..."

28) 홍순용, 이을호 : 前揭書, p.318.

"此證 原委 勞心焦思之餘 胃脘衰弱而 表局虛薄 不勝寒而 外被寒邪所圍 正邪相爭之形勢 客勝主弱 ..."

있는 부분이 있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³²⁾.

* 水穀 納於胃而 脾衛之 出於大腸而 腎衛之 脾腎者 出納水穀之府庫而 迭爲補瀉者也

* 氣液 呼於胃脘而 肺衛之 吸於小腸而 肝衛之 肺肝者 呼吸氣液之門戶而 迭爲進退者也

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은 『東醫壽世保元』 저술 이전의 草稿로 추정되는 醫書로, 李濟馬의 나이 40세 후반과 50세 초반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³³⁾. 이 책의 ‘卷之二·病變’의 내용 중 發汗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體質別 發汗과 疾病有無³⁴⁾

太陽太陰身體多汗則無病, 乏汗則有病, 少陽少陰身體乏汗則無病, 多汗則有病.

2) 體質別 急病時 發汗에 의한 예후 판별³⁵⁾

少陰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 當視於人中之汗不汗也. 少陽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 當視於肘 外之汗不汗也. 太陰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 當視於觀上之汗不汗也. 太陽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 當視於外腎之汗不汗也.

3) 體質別 病中 예후 吉症³⁶⁾

少陰人病中雄壯叫呼, 喜欲冷水則, 其病雖重終當效也.

少陽人病中沈潛安靜稍稍進食者則, 其病雖重終當效也.

太陰人病中身濕有汗則, 其病雖重終當效也.

太陽人病中胸痛利泄者, 其病雖重終當效也.

4) 太陰人 發汗과 病證의 吉凶³⁷⁾

太陰人急病身冷而全體四肢俱大汗者危證也. 但身

溫而頂顛項背次第得汗者吉兆也. 太陰之汗, 始於頂者可喜也. 中於顛者危也. 終於背者病愈也.

5) 기타³⁸⁾

(1)

少陰人頭痛發熱病, 病則病也, 比之冷泄則輕症也. 少陽人腹痛滯病, 病則病也, 比之汗咳則輕症也

(2)

眼明手捷少陰之吉祥, 能食安寢少陽之吉祥. 肉肥汗多太陰之吉祥, 肉瘦溺數太陽之吉祥.

(3)

太陰之執證若有可疑則, 當占于六脉之緊長, 少陽人之執證若有可疑則, 當占於夜睡之盜汗也, 少陰之執證平居呼吸如常而有時有太息, 太陽之執證平居飲食如常而有時有就嘔逆.

(4)

太陰人運氣病五六日, 片汗不出則, 熊膽不可不用, 少陽人運氣病二晝夜, 大便不通則, 甘遂不可不用, 少陰人運氣病七日內, 人中不汗則, 桂參不可不用, 又少陰人乾霍亂面色帶青而上下不通則, 巴豆不可不用, 太陰人語靜微低而腦膜阻塞則, 瓜蒂不可不用, 少陽人丹毒紅粒遍體煩燥而不寧則, 石膏不可不用.

(5)

張仲景所論傷寒病: 太陽傷風證, 陽明大實大滿證及三陰證皆少陰人運氣病也, 少陽半表半裏症及陽明熱症皆少陽人運氣病也, 太陽傷風脉緊無汗之證既太陰人尋常外感也.

(6)

視古方之用人參于外感則, 人參有補中善表之力可知也.

視古方之用黃芪于虛汗則, 黃芪有固中實表之力可知也.

視古方之用官桂于痘疹則, 官桂有壯中達表之力可知也.

32) 홍순용, 이을호: 上揭書, p.366.

33) 李壽瓊, 宋一炳: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 研究, 四象醫學會誌 11(1): 63-77, 1999.

34) 金達來: 東醫壽世保元 草稿, 서울, 정담, p.60, 1999.

35) 金達來: 上揭書, p. 60

36) 金達來: 上揭書, p. 61

37) 金達來: 上揭書 p. 61

38) 金達來: 上揭書, pp. 63, 66, 67, 69, 71

視古方之用附子于陰症泄瀉則，附子有逐冷壯火達表之力可知也，皆四藥補藥而兼表功。

III. 總括 및 考察

發汗은 생리, 병리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나 서양의학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중요시하지는 않는 것 같으며 체온조절과 노폐물 배설을 위한 한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을 뿐이다. 인체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고 이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즉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체표를 통한 복사, 대류, 증발, 전도 등의 물리적인 기전을 동원하고 있으며 發汗은 이중 蒸發에 의한 조절기전의 하나로 볼 수 있다³⁹⁾.

정상체온은 개인에 따라 1℃정도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하며 하루 중의 변동폭 또한 1℃에 이르며 감정적 흥분에 의해서도 38℃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⁴⁰⁾. 이러한 사실은 四象醫學의 관점에서 보면 體質에 따라 에너지 생산과 소모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를 충분히 가능하게 해준다. 즉, 陽熱하면서 陰液이 충분한 體質은 생리적으로 發汗이 많고, 陰冷하거나 陰液이 부족한 체질은 적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다.

李濟馬는 四象人辨證論에서 체질판정의 어려움을 인정하였고, 완전한 體質判別을 위해서는 반드시 病證을 參考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四象病證의 특징은 病證별로 특이한 증상이 수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證治臨床에서 증후의 일부로 인식되던 것들이 病證을 결정하는 단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少陽人 亡陰證의 泄瀉나 裏熱便閉證의 便秘와 같은 것이며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發汗 역시 病證과약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필자는 發汗에 대한 四象醫學의 考察에 앞서 일반적인 韓醫學에서의 發汗의 정의 및 病理的 發汗의 형태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韓醫學에서 汗은 陽氣가 陰에 더해져 생기는 것으로 陰이 건고할 때 陽氣가 相搏하면 熏蒸되어 汗이 된다고 하였으며, 자연현상 중 비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병리적으로는 주로 濕熱을 論하였으며 장부 중에서는 여러 장기와의 연관성이 설명되어 있으나 주로 心과 관련하여 설명된 부분이 많아 보인다. 서양의학에서처럼 노폐물의 배설이나 체온조절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發汗을 통해 인체 내부의 陰陽虛實을 판별하고 臟腑의 病을 찾아내는 것들은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東醫寶鑑』의 津液篇을 정리해 보면 病理的인 發汗의 형태로 自汗과 盜汗, 亡陽으로, 그 외 부위별로 頭汗, 心汗, 手足汗, 陰汗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타 血汗, 黃汗, 漏風으로 나눌 수 있었다⁴¹⁾. 여기서 自汗과 亡陽의 病理는 少陰人의 病證으로 盜汗은 少陽人의 病證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李濟馬는 이 내용의 일부를 직접 『東醫壽世保元』에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韓醫學에서 汗은 陰分이 충분할 때 陽熱의 作用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六氣의으로는 濕熱에 의해 주로 나타나며 臟腑로는 주로 心과 관련이 있다. 다양한 發汗 형태를 보이며 이중 일부는 四象醫學的 發汗에 대한 生理, 病理的인 기초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四象體質醫學에서는 發汗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각 체질에 있어서 生理, 病理的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이에 필자는 본론에서 『東醫壽世保元』과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내용을 發汗을 중심으로 考察해 보았다.

먼저 『東醫壽世保元』을 정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少陰人·少陽人·太陰人·太陽人의 순서로 분석해 보고 다음에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내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少陰人은 일반적인 體質判別 問診에서 發汗에 의해 氣力이 저하되며 전신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發汗 현상 역시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체질이다. 그러나

39) 성호경, 김기환 : 생리학, 서울, 의학출판사, pp. 345-355, 1997.

40) 성호경, 김기환 : 上揭書, p. 349

41) 許浚 : 前揭書, pp. 123-125

이러한 통념은 證治醫學에서 말하는 氣虛, 구체적으로 말하면 衛氣虛證과 少陰人 病證을 동일시함으로써 나타난 사고로 생각되며, 또한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의 太陰人和 少陰人 判別法⁴²⁾ 내용에 너무 의존하여 나타난 생각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적으로 맞는 이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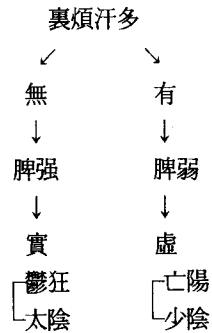
『東醫壽世保元』을 정리해 본 결과 少陰人의 表裏病證中 表病證은 發汗有無에 의해 病證을 구분할 정도로 發汗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裏病證 또한 비슷한 病理段階를 가지고 있어서 少陰人 病證에 있어서 發汗은 어느 체질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李濟馬는 太陽病에서 陽明病으로 진행되는 병리를 脾約과 胃家實로 정리하였고 그 속에서 表病證인 鬱狂 亡陽의 病證을 찾아내었다. 여기서 脾約과 胃家實의 病證 전변상의 독립성을 분명히 하였고 이로서 鬱狂, 亡陽 역시 상호 전변되지 않고 시작부터 어떠한 요소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裏病證의 太陰證, 少陰證에 있어서도 表病의 鬱狂, 亡陽과 동일한 병리 단계로 설명함으로써 평소의 素因에 따른 病證결정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였다. 실제로 李濟馬는 少陰人에 있어서 脾臟의 強弱에 따라 弱한 경우에는 亡陽證으로 強한 경우에는 鬱狂證으로 病證이 진행한다고 하였고, 평소에 裏煩汗多한 경우에는 病證이 올 때 반드시 亡陽證으로 온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의 예방을 위해 평소 보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榆⁴³⁾에 의하면 鬱狂과 亡陽으로 진행되는 少陰人의 두 가지의 유형에 있어서 성격의 차이까지도 논하고 있으며 이의 분류에 따라 임상 또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결국, 少陰人에 있어서 평소 裏煩과 수반되는 發汗여부는 脾臟의 強弱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의 強弱에 따라 病證 또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圖表1. 少陰人 表裏病證의 病證進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술은 앞서 말한 少陰人편의 鬱狂, 亡陽에 대한 고찰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亡陽證의 증세 표현이다. 汗出이 수반된다는 것 외에는 太陽病發熱惡寒, 陽明病不惡寒反惡熱, 陽明病發熱의 증세진행은 虛證이 심해지는 현상으로 보기에 힘들다. 참고로 『東醫寶鑑』의 亡陽에 대한 내용을 보면 ‘汗多不止’한 경우와 ‘汗不得出’한 경우를 모두 亡陽이라 하였고, 반드시 身冷한 증세가 수반되고 痺寒의 증세가 많이 생긴다고 『醫學入門』의 내용을 인용하여 기술하고 있다⁴⁴⁾.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의 亡陽의 개념은 眞陽이 脫亡하여 생기는 것으로 寒證이 수반되는 病證이다. 이를 李濟馬는 內氷外炭의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陽氣가 극도로 허해지면서 이와 같은 증세가 나타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며 傷寒論의 병리설명과도 상반되는 의미가 있다. 또한 亡陽證은 小便赤澀의 증세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소변이 淸利한 경우보다 더 危證인 것으로 돼 있으며, 少陽人 裏熱證과 太陰人 表熱證에 있어서도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므로 감별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⁵⁾.

결국 少陰人 病證의 亡陽은 『東醫寶鑑』, 『醫學入門』 등의 일반적인 陽虛와는 다른 개념이며 평소에 脾弱한 소인을 가진 少陰人이 表病에 감촉되었을

42) 홍순용, 이을호 : 前揭書, p. 138
 “...太陰人 虛汗則完實也 少陰人 虛汗則大病也 ...”
 43) 榆周烈 : 東醫四象醫學講座, 서울, 大星文化社, pp. 276-277, 1998.

44) 허준 : 前揭書, p. 125
 “汗多不止謂之亡陽又汗不得出亦爲之亡陽 …… (入門)”
 “汗漏不止則眞陽脫亡故謂之亡陽其身必冷多成痺寒矣(入門)”
 45) 본론 少陽人篇의 원문 기재 부분 참조

때 나타나는 病證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듯이 寒證이 수반되는 病證으로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종합하면, 少陰人에 있어서 眞은 保命之主인 陽氣의 존속여부와 偏小之臟인 脾臟의 虛實을 파악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脾臟의 虛實은 少陰人 病證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少陽人에 있어서 發汗에 관한 언급은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전술한 내용을 토대로 少陽人 汗出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病의 치료과정 중에 나타나는 汗出은 表陰之氣가 하강하는 표현이고, 裏病 중 胃熱의 상태에서 汗出은 淸陽之氣가 소실되는 표현이다. 上消에서의 汗出은 大腸의 淸陽之氣가 頭面四肢까지는 미치지 못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陽弱'의 표현이라 하였다. 정리하면 少陽人의 汗出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表證에서 병이 풀릴 때 '降陰'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둘째, 裏證에서 '陽弱'하여 淸陽之氣가 완전히 상승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특이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少陽人은 腎小하기 때문에 陰虛에 의한 盜汗의 형태로 많이 나타날 것 같으나 여기에 대한 언급은 『東醫壽世保元』에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을 보면 少陽人 執證시 확실치 않으면 盜汗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 된다⁴⁶⁾고 되어 있어서 少陽人의 病理的 汗出은 盜汗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太陰人의 汗出은 기존 韓醫學에서의 汗出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탈피하고 있다. 肺小하여 呼散之氣가 부족한 太陰人의 특성상 汗出은 太陰人 偏小之臟의 기능이 잘 발현되는 현상이므로 完實無病의 조건이라고까지 하였다⁴⁷⁾. 따라서 생리적인 상태에서는 寒·熱 太陰人을 불문하고 多汗하는 것이 정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太陰人 表病에서 汗出은 病證

파악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명되고 있으며 그 위치 및 성상에 대한 언급은 李濟馬가 太陰人 表證을 '汗出'의 관점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사고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한편, 太陰人 裏病證은 侈樂無厭으로 慾火外馳하여 肝熱이 肺로 올라가 肺燥하게 되어 발생한 증세로 燥熱證, 陰血耗竭로 대분하며, 陽毒發斑, 癩病合病 등이 발생하게 된다⁴⁸⁾. 여기서 肝熱은 임상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濕熱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따라서 裏病證藥을 사용하면 濕과 熱이 해소되면서 發汗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肝熱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심해져 肺燥의 症狀이 심해지면 평소 汗出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治療法 또한 發汗法을 쓰기는 어려워지며 따라서 淸肝熱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裏病證 편에는 汗出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며 治方 역시 發汗, 祛濕을 위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太陽人 病證論은 汗出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장부특성상 肺大하므로 發汗은 평상시에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반대로, 너무 지나쳤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四象病證을 水穀之氣病證과 氣液之氣病證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眞은 엄밀히 말해 이 둘 중 氣液之氣病證으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脾臟과 腎臟의 大小에 의해 나타나는 少陰人, 少陽人 病證에 있어서도 發汗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보면 水穀·氣液之氣 病證 모두 發汗의 病證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太陽人을 제외한 세 체질에 있어서 汗出이 吉症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少陰人은 '人中汗', 少陽人은 '手足掌心汗出', 太陰人 '胸臆之間의 汗出'이다. 여기서 少陰人의 人中汗은 陽氣上升의 표현이고, 少陽人의 手足掌心汗出은 表陰之氣 下降의 표현이라 하였으며, 太陰人의 경우에는 특별한 언급은 없으나 肺의 呼散之氣가 잘 발현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리

46) 本論 東醫壽世保元 草本卷 정리 부분중 '5) 기타'의 (3)문장 참조

47) 홍순용, 이을호 : 前揭書, p. 141
"太陽人 小便旺多則完實而無病 太陰人 汗液通暢則完實而無病 少陽人 大便善通則完實而無病 少陰人 飲食善化則完實而無病"

48) 송일병의 15인 : 前揭書, p.222.

한 특정부위의 汗出이 그러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연성은 없어 보인다.

최근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쓰기 전 ‘草稿’로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다소 정리되지 않은 듯한 이본들도 볼 수 있으나 四象醫學의 정립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卷之二’ ‘病變’을 보면 發汗에 대한 내용을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原文을 정리하여 本論에서 정리 수록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太陽人과 太陰人 多汗하면 無病하고 乏汗하면 病이 있다고 하였으며, 少陰人과 少陽人은 이와 반대라 하였다. 이 부분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太陽人, 太陰人은 臟腑大小가 정 반대인데 發汗이 둘 다 좋은 것이라 한 것은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東醫壽世保元』 辨證論에서는 太陰人, 少陰人의 病證에 의한 구별 내용에서만 언급하고 太陽人, 少陽人에 관한 내용은 제외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李濟馬가 『草本卷』을 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둘째로, 危急한 病의 상태에 있어 체질별로 發汗에 의해 吉凶을 예측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體質別 急證時 發汗部位에 의한 吉凶判別

體質別急病	吉凶判別部位
少陰人急病	人中汗
少陽人急病	肘之外之汗
太陰人急病	觀上之汗
太陽人急病	外腎之汗

이 부분은 『東醫壽世保元』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少陽人의 경우에는 『東醫壽世保元』에 手足掌心汗出로 달리 표현되어 있고, 太陽人의 경우는 『東醫壽世保元』에 언급되지 않았다.

셋째, 太陰人의 發汗에 있어서 전신 發汗이 있더라도 身冷한 상태에서 發汗이 있으면 危證이라 하여 『東醫壽世保元』에서 發汗의 위치와 성상에 따라 吉凶을 나는 것 외에 身溫한 상태에 發汗하는 것이 좋다는 또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肉肥汗多한 것은 太陰人의 吉證이라 하였고 病中에서도 太陰人은 身濕有汗하면 病이 重하더라도 곧 낫을 수 있다 하였다.

『草本卷』의 내용 역시 ‘發汗’에 있어서는 太陰人에 관한 내용이 많았으며 體質別로 平常時 發汗 여부에 따른 疾病 可能性에 대한 언급은 臟腑 이치상 이해가 힘든 부분으로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하며, 또한 그 외 『東醫壽世保元』의 내용과 다소 다른 내용들도 향후 임상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IV. 結 論

東醫壽世保元의 내용을 ‘發汗’을 중심으로 하여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發汗은 太陽人, 太陰人의 경우에는 肺, 肝의 呼散之氣, 吸取之氣에 의해 이루어지는 氣液之氣病證에 의해 설명할 수 있으며, 少陽人, 少陰人에 있어서는 脾, 腎의 水穀之氣 病證에 의한 陰陽의 升降過程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 少陰人의 發汗은 偏小之臟인 脾臟의 強弱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며, 脾臟이 강한 경우에는 鬱狂으로 弱한 경우에는 亡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3. 少陽人의 發汗은 첫째, 表證에서 病이 풀릴 때 ‘降陰’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둘째, 裏證에서 ‘陽弱’하여 淸陽之氣가 완전히 上升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4. 太陰人의 發汗은 肺臟機能이 잘 발현되는 표현이며, 表病證인 長感病에서 發汗의 位置 및 性狀은 病證把握의 핵심요소가 된다.
5. 少陰人 亡陽證의 發熱汗多, 小便赤澁의 症狀은 少陽人 裏熱證과 太陰人 表熱證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별해야 한다.

6. 少陰人의 人中汗, 少陽人의 手足掌心汗出(肘之外之汗), 太陰人의 額上汗, 太陰人의 外腎之汗은 각각의 病證解釋에 있어서 吉證에 해당한다.

參 考 文 獻

1. 龔信 : 古今醫鑑, 江西省,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0
2. 金達來 : 東醫壽世保元草稿, 서울, 정담, 1999
3. 김정찬 : 難經譯釋, 서울, 정담, 1993
4. 성호경, 김기환 : 生理學, 서울, 의학출판사, 1997
5. 宋一炳 외 15인 :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6. 虞搏 :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7. 유주열 : 東醫四象醫學講座, 서울, 集文堂, 1997
8. 李槿 : 新敎 編註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
9. 王冰 : 新編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10. 朱震亨 : 新編 丹溪心法附餘(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3
11. 채인식 : 傷寒論譯註, 서울, 고문사, 1987
12. 河北醫學院 : 靈樞經校釋(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3. 홍순용, 이을호 : 四象醫學原論, 서울, 杏林出版, 1992
14. 李壽瓊, 宋一炳 :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 研究, 사상의학회지 11(1), 1999
15. 河萬秀 : 汗을 중심으로 한 體質病證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5(1), 1993